

지역 소식통

완주군, 전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모델 선정

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전국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이 된다.

19일 완주군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모한 2020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체계 구축을 비롯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청소년시설) 총 4개 지역에 3500만원(지역별)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선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기획·주도하는 청소년축제기획단 및 대표축제 운영, 청소년기자단, 권리영화제 등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최은주 청소년정책과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의를 갖고 추진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군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진단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제시보건소, 코로나 차단 '에어샤워기' 설치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보건소 출입통로에 대인소독기인 에어샤워기를 설치했다.

에어샤워기는 보건소 진입시 에어(공기)로 전신소독이 가능한 기기이다.

현재 김제시보건소에서는 해외 입국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선별진료소의 비상근무 의료진은 물론이고 내방객의 감염 노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에어샤워 소독기를 설치했다.

김제시보건소는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출입시 발열체크,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의 비상방역운영 체계를 운영하며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어업회의소와 협치 강화

박성일 완주군수와 정책간담회 개최... 농업발전 협력 다짐

완주군이 농어업회의소와 협치농정을 다짐했다.

19일 완주군은 최근 박성일 군수, 송병주 농어업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5개 읍면 지회장,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농어업발전 및 민관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농어업회의소는 완주군에 농정사업 심사위원회 참여, 경축순환농업

관련 지원강화, 농어업회의소 운영비 지원, 농업관련 전수조사자료 제공 등 4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정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회의소 운영을 위한 사업발전 및 민관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사업도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축순환농업을 농가에서 먼저 제안해 고무적이다"며 "구체적 사

업구상을 제안하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부속퇴비지원, 퇴비발효장고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수질오염총량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협치행정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완주군 농어업회의소는 2015년 10월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이듬해 설립추진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2018년 8월에 설립됐다.

/원주=이종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향토산업육성이 일환으로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등에서 추진한 농산물 푸러미 판매행사를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기억안심 푸러미' 전달로 '기억안심 홈스쿨링' 실시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쉼터, 비대면·비접촉 방식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쉼터 1기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완화 및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기억안심 홈스쿨링'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기억안심 홈스쿨링'이란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로 이용하여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전 준비로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들이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홈스쿨링을 위한 '기억안심 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 확인 후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방법 설명 및 통화 가능 시간을 조사했다.

'기억안심 푸러미'는 기억력 강화를 위한 인지놀이 워크북, 정서 지지를 위한 반려동물 제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물류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상자 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식물 돌보기 및 인지놀이를 워크북 수업을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가 중단되어 가정에만 있어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치매 환자에게 '기억안심 홈스쿨링'이 활력을 되찾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리소, 코로나19 극복 자체 제작 '마스크 2만장' 기부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주)소리소(대표 최형자)가 19일 자체 생산한 마스크 2만장을 김제시에 기부했다.

(주)소리소는 앞서 올해 초 2월에도 직접 생산한 손 소독제 2,000개를 시에 기부했던 기업으로 이번이 연이은 두 번째 방역물품 기부로 알려졌다.

(주)소리소는 본래 한방화장품 제조 기업이었으나 급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 경영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과감히 업종을 추가하고 지난 5월 초부터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현재 손 소독제는 국내 공급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계약으로 약 16만개(4억원) 수출이 진행 중이며 마스크 또한 생산기계를 추가 도입하여 6월 초부터 월 5천만장(100억원)을 생산하는 양산 시스템을 갖춰 국내 공급과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스크를 전달한 (주)소리소 최형자 대표는 "지난 4월 손 소독제 수출을 앞두고 김제시에서 수출에 필요한 제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소리소(대표 최형자)가 19일 자체생산한 마스크 2만장을 김제시에 기부했다.

품규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김제 유일 방역물품 생산기업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일조를 하고자 처음 본격 생산을 시작한 5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생산된 마스크 2만장 전량을 기부하고 됐다"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생활방역에 가장 필수적인 마스크를 전달받게 되어 관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시민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로컬푸드 농산물 푸러미 판매

김제 성산공원 주차장, 드라이브 스투로 푸러미 판매행사 성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향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 등에서 추진한 농산물 푸러미 판매행사를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과, 청국장, 마늘, 두부, 달걀 등 11개 품목의 찌개 푸러미와 파채, 아스파라거스, 양파, 방울토마토 등 10개 품목의 구이 푸러미 및 삼겹살 1kg 3종류로 당일 생산, 당일 포장한 신선한 농산물 푸러미 판매행사로, 200여개를 사전예약을 통해 판매하였다.

농산물 푸러미는 성산공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투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비가 오는 등 늦은 날씨 속

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하였다.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최승일 단장은 "많은 참여를 해주신 김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농산물 소비 위축, 개학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생산자 단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준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특장차협의회, 정기 세미나 성료

한국특장차협의회(회장 최길호)는 지난 18일 김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전북 특장차산업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기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총 40여명의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 회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장차 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된 자기인증센터 확충 및 특장차 제2전문단지 조성 등 특장차 클러스터 구축 계획안 설명과 함께 특장차기업의 신규 지원사업 등을 설명 했다. 또한 전북 특장차 산업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특장차협회 최길호 회장은 이



번 세미나를 계기로 '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김제를 특장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는 자기인증센터 확충 및 특장차 제2전문단지조성 등 특장차업 클러스터를 2024년까지 구축하여 특장차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